

구제역 바로알기

구제역이 뭔가요?

1. 소, 돼지, 양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입니다.
2. 구제역에 걸리면 잇몸, 혀, 코 등에 물집이 생겨 식욕을 잃거나 수포가 온몸에 퍼져 다리를 절기도 합니다.
3. 구제역 바이러스 잠복기는 가축에서 최대 14일, 분뇨 등 야외에서는 최대 6개월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구제역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1. 현재 발생한 구제역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구제역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가축의 콧물, 침, 분변에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차량, 야생 동물 등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전파됩니다.

백신으로 구제역을 막을 수 있나요?

1.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백신은 구제역 세계표준 연구소에서 추천한 백신 중에 선정된 것입니다.
2. 17년 발생한 구제역바이러스에 사용중인 백신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제역 세계표준 연구소 보고서)
3. 백신은 구제역을 막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구제역 바로알기

백신을 접종해도 항체형성률이 낮을 수 있나요?

1. 독감 주사와 같이 구제역 백신은 접종 시기와 접종 방법이 존재합니다.
2. 접종 시기와 접종 방법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백신의 효능이 떨어집니다.
3. 결국, 백신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항체형성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항체형성률

- 농가단위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가축을 비율로 나타낸 것 (항체보유개체/조사개체)
- 항체양성률로도 쓰임

항체형성률이 100%인 농장의 가축도 구제역에 걸릴 수 있나요?

1. 백신을 접종하였고 항체형성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면역력이 낮거나 허약한 소,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 전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 등이 그 예입니다.
3. 백신만으로 구제역을 100% 막을 수 없으므로 철저한 차단방역과 소독이 병행되어야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합니다.

구제역 바로알기

구제역을 막기 위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1. 축산 농장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농장 주변에 가지 않고(택배나 우편물 등의 배달도 농장으로 직접 들어가면 안됨), 소독 시설을 지나갈 때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가 필요한 때입니다.

구제역도 사람에게 전파되나요?

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발생원인은 무엇인가요?

1. 유전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외 유입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보통 구제역은 감염동물의 수포액이 터지거나 침, 유즙 등에 의한 직접 접촉, 감염지역 내 사람과 차량 등에 묻어서 간접 전파가 됩니다.

구제역 바로알기

현재 사용하는 백신은 효과가 있나요?

1.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은 구제역 세계표준 연구소에서 추천한 백신입니다.
2. 세계표준연구소 자료에 근거하여 국내 사용중인 백신이 이번에 발생한 O형과 A형 구제역 바이러스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는데 농장의 항체형성률이 왜 낮나요?

1. 백신 접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 시기의 준수와 올바른 접종 방법입니다.
2. 위 두 가지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항체형성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백진접종 후 농장의 항체형성률이 높아졌는데 구제역에 걸린 소가 생길 수 있나요?

1. 백신은 가축의 방어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구제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항체형성률이란 농가단위로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가축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항체보유개체/조사개체)
3. 결국, "농가 단위에서" 항체 형성률이 높아도 "개체 단위에서" 허약한 소이거나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전인 소 등은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백신이 취급 및 접종과 함께 세척소독, 차량과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구제역백신접종,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구제역 방어막은 구축되어 있나요?

1.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가이드라인에 따라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①항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항체형성률이 기준이하인 농가는 법적으로 제재하고 있습니다.
3. 항체형성률 기준은 소는 검사두수의 80%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1. 소의 경우 백신을 2개월에 한번 접종, 4주 후 2차 접종하고, 이후에는 4~7개월 간격으로 접종합니다.
2. 돼지의 경우 모돈(엄마돼지)은 분만 3~4주전에, 웅돈(아빠돼지)은 4~7개월 간격으로 접종, 자돈(새끼돼지)은 8~12주에 접종합니다.

구제역백신접종, 이렇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에는 문제가 없나요?

1.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이나 이번에 경기도 연천에서 다른 유형인 A형이 새롭게 확인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맞는 O형과 A형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O+A'형 백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이번에 발생한 O형과 A형 구제역 바이러스와 백신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해 세계표준연구소에 적합성(매칭률)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3. 또한, 자체적으로 백신 매칭 실험을 진행하여 종합분석을 할 예정이나 1~2달 소요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4.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급성과 수급문제로 인해 발생지역에 대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O+A형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5. 추가 발생상황에 대비하여 백신을 해외에서 긴급 추가 수입할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구제역백신 바로알기

국내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은 무엇인가요?

소·돼지에 모두 사용가능하며 우리나라와 EU의 기준을 통과한 백신입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권고하는 백신이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백신 중 하나입니다.

백신 접종할 때 반드시 목덜미에 해야하나요?

구제역 백신은 근육부위에 접종하는 예방약으로 목·엉덩이 부위에 모두 접종가능하나, 백신 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목 부위 접종을 권장합니다.

백신만 접종하면 구제역을 막을 수 있나요?

철저한 차단방역과 예방접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일부 개체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구제역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